

# 전 하버드 총장 “기여입학제도 폐지해야”



▲ 하버드대학 입학 방문자 센터 안내 표지판. 사진=shutterstock

하버드대에서 가장 오래 재임했던 테릭 북(93) 전 총장이 100년 가까이 이어온 미국 대학계의 ‘기여입학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전 총장은 지난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부유하고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어느 때보다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학업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 전 총장은 1971~1991년과 2006~2007년 두 차례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다.

미국 예일대가 1920년 도입한 이후 다수 미국 명문대가 도입한 기여입학제는 고액기부자·교원 및 교직원 자녀 등에 게 입시 특별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대학 재정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 등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유한 백인의 ‘학벌 세습’ 통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지 부시,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도 기여입학으로 각각 예일,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미국의 각 대학은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지만 현

재 미국 사립대의 42%, 공립대 6%가 입시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국(NBER)의 조사 결과, 지난 2014~2019년 사이에 하버드대에 입학이 허가된 지원자 중 기여입학 지원자는 15%를 차지했고, 이 중 70%는 백인이었다. 기여입학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에 비해 합격 가능성이 6~7배나 높았다. 이 연구소는 또 입학한 백인 학

생 중 43%가 기여입학생, 운동특기생, 교직원의 자녀, 혹은 학장의 재량에 의한 입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부유하고 연줄이 좋은 백인에게 유리한 현행으로 고착됐다. 기여입학제를 통해 지원하는 전형적인 백인의 합격 확률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5배 높다는 듀크대 연구 결과도 있다.

기여입학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본격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지원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불평이 기여입학제에 튀었다.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가 불공정하다면 유력 동창이나 부자를 우대하는 기여입학제도 역시 불공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인권 변호사는 기여입학제를 중단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다만 북 전 총장은 적극적 차별 시정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흑인, 라틴계 등 다양한 인재를 모집하려는 노력이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 대학에서의 전공 변경, 어떻게 할까

미국 대학에 심리학으로 입학했던 학생이 STEM 가운데 하나인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 변경이 가능할까? 결론을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모든 전공이 다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학마다 알아 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정했던 전공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쉽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재고하고 전공을 변경한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전공을 변경하기 쉬운 것은 미국 대학들의 유연한 시스템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공을 변경하기 위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 1~2학년때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목들은 여러 전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전공 선언은 2학년 말에 한다. 전공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한다.

전공 변경은 변경하고 싶은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공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 전공 변경 전에 학교 카운슬러와 교수를 만나 전공 변경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변경하고 싶은 전공의 필수 과목을 확인하고, 현재 이수한 과목과 비교해야 한다. 변경하고 싶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공 변경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흥미:**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거나 유망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 **적성:**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없는데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바꾸면 낭패를 당한다.

- **졸업 후 계획:**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 **필요한 과목:** 변경하고 싶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졸업 기간:** 전공 변경으로 인해 졸업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전공 변경 관련 정보는 보통 대학 홈페이지에 있다. 이를 자세히 참고하는 것이 좋다. 변경하고 싶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면 전공 변경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카데미 카운슬러를 만나 전공 변경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정했던 전공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쉽다. 하지만, 전공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shutterstock

# 스포츠 손상 · 현대인의 목 · 어깨 통증 · 자세변형

## • SPORTS MOTION THERAPY •

- 올바른 자세 - 관절 변형, 통증 유발 원인
- 건강한 관절 - 활기찬 생활

〈한방치료 / 재활운동치료 / 최신장비 사용〉

### 진료 과목

-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엘보우
- 손목 염좌
- 척추 측만증, 거북목
- 무릎 및 족부 통증 / 허리 디스크
- 오십견, 안면신경 마비

### 경력

- Acupuncture L.Ac
- 한국 물리치료 경력 20년 이상
- 한국 스포츠 물리치료 정회원
- 한국 야구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 침, 부항, 한약

### 추나요법

김창배 L.Ac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보험〉

서울메디칼그룹 / HSA / FSA / 비보험 환영

SMTACUPUNCTURE T.714.519.3022

100 N. State College Blvd. Suite E, Fullerton, CA 92831 | www.SMTAcupuncture.com

